



애니쿤 Anikoon

로봇 그림으로 자신만의 독특한 작업세계를 구축한 애니쿤은 현대인의 모습을 오래된 장난감 로봇에 투영한다. 태엽을 감는 깡통로봇이나 스타워즈 시리즈의 이미지는 오늘날 종종 회자되는 레트로적 감성이 보이는가 하면, 젊은 에너지와 툭툭 튀는 분위기 이면에 로봇의 익살스러운 표정에서 문득 묻어 나오는 외로움과 쓸쓸함의 정서를 통해 오늘날 대중 속의 소외나 고독을 읽을 수 있다. 작업은 과거 명작의 패러디 요소들은 물론 스프레이 페인트를 사용하는 그래피티 채색 기법의 빠르게 지나가는 흔적으로 팝적인 경쾌함을 획득한다. 또한 만화적 요소와 인쇄 망점, 이미지와 텍스트의 자유로운 중첩을 보이는 가운데에서도 절제된 구성과 색채로, 평면성을 강조하는 현대적 회화 평면을 구사한다.

오늘날 게임이나 애니메이션 등의 대중문화의 영향 아래 새로운 세대는 그 특유의 다양하면서 개인 혹은 미시적인 관점의 경향이 있다. 작가가 만화적 형태인 로봇 혹은 영화적 캐릭터 형상에 자신을 대입시켜 각각에 이름과 성격을 부여하여 의인화하면서도, 어릴 적 자유로웠던 상상적 세계를 소환하고 직관과 감성으로 작품을 완성해나가는 과정에서 결국 의도하지 않았던 캐릭터가 부가된다. 이는 작업이 정교한 재현이 아니라 사물의 감성과 회화적 추상성이 잘 버무려져 표현되는 것이다. 서구의 네오-팝, 한국 팝아트의 계보 속 작가들은 회화뿐 아니라 영상이나 사진, 설치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일상을 끌어들었다. 이 가운데 “삶은 예술이고 예술은 삶이다.”라고 말하는 작가는 평면과 오브제, 영상 작업을 아우르며 일상으로 소통하려고 한다. 그는 오는 5월에 뉴욕에서 열리는 '모던아트프로젝트'를 앞두고 준비 중이다.

b.1980

Educ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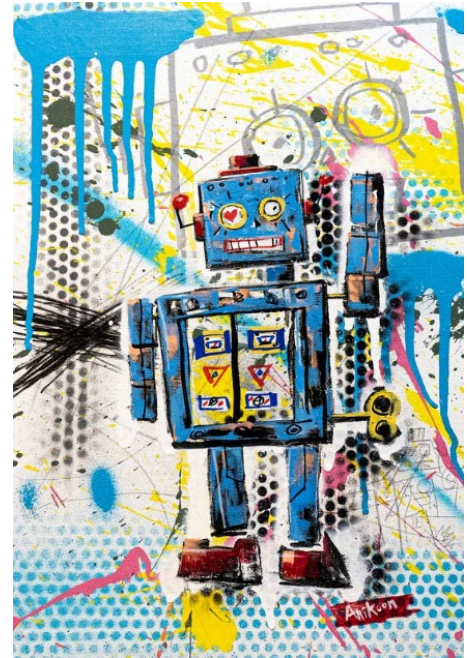
2015 홍익대학교 조형예술학부 영상영화과 졸업

Solo Exhibitions (2017-)

- 2021 Hello, I am, 스타파이버갤러리, 인천
Hello robot, 국립부산과학관, 부산
ANIKOON 한성진, 연우재, 서울
- 2020 언택트 & 컨택트, 진산갤러리, 서울
Robopop, 휴맥스 아트룸갤러리, 서울
Robot reboot, 스타벅스 별빛미술관, 과천
- 2019 Found17 잃어버린 나를 찾다, 유나이티드갤러리, 서울
- 2018 Eat your tail, 스페로갤러리, 인천
- 2017 Hope, 갤러리위안, 서울

Group Exhibitions (2018-)

- 2021 More Modern Than, 서호미술관, 서울
ART TOKEN_KARTZ : ART SHAPES THE FUTURE, 노들섬 다목적홀, 서울
모던아트프로젝트: 먼저 보기 Momen Art Project: First View, 연희동, 서울
- 2018 어포더블 아트페어, 싱가포르
아시아컨템포러리 아트페어, 홍콩



Hello! RB 06,
2021, acrylic on canvas, 43 x 30cm